

### **설정1 (루프 지점)**

하연은 무조건 죽어야 처음 장면으로 '루프' 됩니다.

시나리오 상 죽는 장면이 없음에도 갑자기 '루프' 될 때가 존재하는데,  
사망 장면이 생략된 것이며 이는 하연이 기억을 못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.

### **설정2 (사망 플래그)**

서현의 가방에 달린 키링은 은우의 원한을 자극하는 트리거입니다. (S#15 참고)

정확한 사망 플래그는 입구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닌 가방을 챙기는 행위 자체입니다.

### **설정3 (트라우마)**

은우는 유일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존재에게 외면당하고

자신의 고통을 안일하게 생각하는 부모의 태도에 의해 인류애를 상실하게 됩니다.

(시나리오 분량 조절을 위해 생략되었습니다.)

### **설정4 (살인 방식)**

목을 조르는 방식이 그 무엇보다 은우의 원통함을 표현하기 적합하다고 생각했습니다.

피살자가 발버둥 치는 모습과 서서히 의식을 잃어가는 모습이

은우가 느꼈던 고통의 형태와 제일 부합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.

## 은우가 항상 들고 다니는 큐브의 의미, 해석

S#11 하연의 대사 중, “그래도 한 면 맞췄네?”

멈춰 있던 하연과 은우의 관계, 사건의 **진전**을 의미

S#11 하연의 대사 중, “여기 면이 안 맞을 땐 이 공식을 써서 이렇게..”

둘 사이를 이어주는 **매개체**이자 **복선** (살아생전에 은우가 하연에게 먼저 했던 말)

S#15 하연의 대사 중, “(큐브의 맞지 않는 면을 보고) 아 왜 안 맞는 거야..!”

S#15 은우의 대사 중, “너는 나와 다른 면이 너무 많았다”

다른 면이 너무 많은 하연과 은우 = **맞추려 해도 맞지 않는 큐브의 다른 면들**

S#15 은우의 대사 중, “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매일 생각하며 변하고자 했고”

“너에게 맞는 사람이 될 때 다가가고 싶었다.”

S#11 하연의 대사 중 “그 큐브는 언제까지 돌리고 있을 거야”

S#11 은우의 대사 중 “다 맞춰질 때까지”

모든 면을 맞추기 위해 큐브를 돌렸다. = **너와 같아지기 위해 변하고자 했다.**

큐브가 다 맞춰졌을 때(**너와 같은 사람이 됐을 때**) 너에게 다가가고 싶었다.

S#16 은우의 대사 중, “변할 수 있는 공식, 그런 게 있었으면 좋았겠지만”

“나에게 진짜 필요한 건.. 그저 용기 그뿐이었구나”

공식을 알고 있음에도 큐브를 맞추지 못한 채 계속 돌리고 있었던 은우.

완성된 큐브 = **이하연**

큐브를 완성하고자 하는 용기 = **하연에게 다가갈 용기**

중요한 건 공식이 아니라 그저 다가갈 용기라는 것을 의미

S#16 마지막 지문, 완성된 큐브가 떨어진다.

은우와 하연의 갈등 해소, 용기의 결실(결국 둘은 친구가 됨), 사건의 종결을 의미